

조선/기계/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

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2023. 8. 7 (월)


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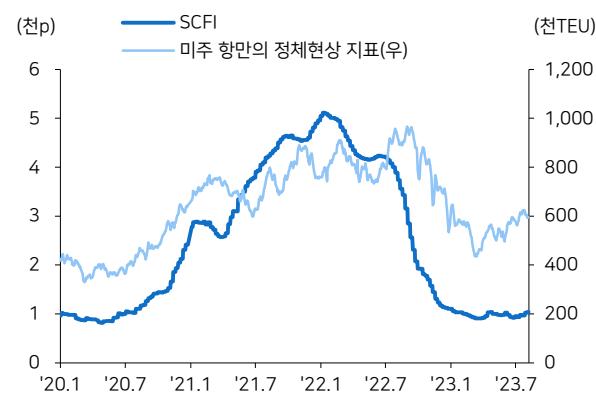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

1,136.0p(+8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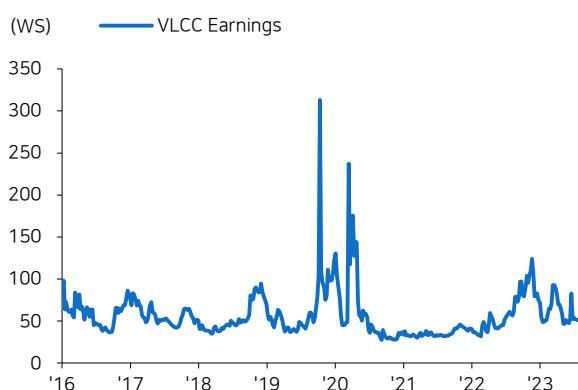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

1,039.3p(+10.1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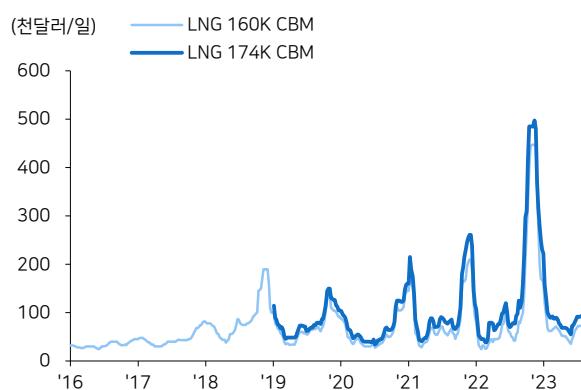
VLCC Spot Rate

50.3p(-0.3p WoW)



LNG Spot 운임

78.8천달러(+5.0천달러 WoW)
107.5천달러(+13.8천달러 WoW)

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72.6p(+0.2p WoW)
149.5p(-1.7p WoW)



중국 내수 후판가격

572.0달러(+0.0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Buyers shift to mainstream fleet after Russia production cuts

러시아산 원유 물동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주류 탱커가 수혜를 봤다고 보도됨. 인도와 중국이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의 주 고객이었는데, 사우디아라비아 및 러시아가 감산을 발표하며 다시 대서양 원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됨. 미국 걸프만-아시아태평양 항로 VLCC가 7월에는 17척이었는데 8월에만 28척이라고 알려짐. (Tradewinds) (<https://shorturl.at/eirUV>)

분할 전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이유 신설된 HD현대중공업에 시정조치 위법

회사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된 HD현대중공업에 내린 시정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됨. 시정명령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됨.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2010년 12월~2012년 8월 엔진 실린더 헤드 발주건 관련 내용으로 언급됨. (Legal Times) (<https://shorturl.at/zKMNV>)

Valaris, 드릴십 2척 떨이 가격으로 매입

Valaris가 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드릴십 2척을 떨이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보도됨. 초심해 시추선인 ValarisDS-13과 ValarisDS-14 구매 옵션을 각각 1.19억달러, 2.18억달러에 행사한다고 언급됨.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쟁사의 시추선은 10척 이하고, 한국조선소에는 Valaris의 2척을 포함해 8척의 신조 시추선이 남아있다고 추정한다고 언급됨. 8척 중 3척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, 곧 체결 예정이고, 높은 건조 비용 및 제한된 조선소 가용성을 고려할 때, 신규 발주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짐. (선박뉴스) (<https://shorturl.at/xJ189>)

New UK offshore oil project gets nod of approval

영국 북해 Teal West 유전 개발이 2024년말~2025년초 생산으로 정부 승인 받았다고 보도됨. 다음 단계는 FID로 알려짐. 기존 Anasuria FPSO를 활용할 예정인데, 3.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고 언급됨. (Upstream) (<https://shorturl.at/vyFSV>)

US major ConocoPhillips snaps up Mexico LNG volumes ahead of project sanction

미국 ConocoPhillips가 Mexico Pacific의 Saguaro Energia 수출 터미널로부터 LNG 2.2MTPA를 계약했다고 보도됨. 해당 터미널을 전체 가동 시 1단계 기준 15MTPA를 생산할 계획임. 현재 계약량이 Train 1, 2 FID는 충족하는 단계로 FID 결정에 집중하겠다고 알려짐. (Upstream) (<https://shorturl.at/bgAY9>)

TotalEnergies starts fresh talks with FPSO players on delayed \$6 billion Africa project

TotalEnergies가 지연된 60억달러 규모 Cameia-Golfinho 프로젝트에 사용될 FPSO 입찰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됨. 2021년에 100,000BPD급 FPSO pre-FEED를 진행했고, 2022년 FID를 목표했다고 알려짐. 그러나 팬데믹, 공급망 비용 상승 등으로 연기되었고, 2023년내 시작해 2026년 가동될 계획으로 알려짐. FPSO는 용선이 아닌 EPCI형식으로 계약될 예정임. (Upstream) (<https://shorturl.at/qrLNP>)